

#### [4] 윤 치 호

구 한국말의 정치가, 호는 좌옹, 둔포면 신항리 출신, 1881년(고종 18년) 최연소자로(17세) 신사유람단에 끼어 일본을 다녀와서 개화사상에 눈을 떴다. 뒤에 미국에 유학하고 1895년 9월에 귀국하여 학부형 판이 되고 이듬해(건양1) 7월에 서재필, 이상재, 이승만 등과 독립협회조직, 1898년 2월 회장이 되고 이해 7월 독립신문사장을 겸임했다.

10월 15일에는 종로네거리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회장의 자격으로 시정개혁 6조를 왕께 상소하여 자주독립과 경제번영을 열망하는 민중의 의사를 대변하여 활약했으나 11월 4일 황국협회측의 모함을 입어 피신(독립협회사건~대표 17명 검거)하고 독립협회도 해산당하였다.

1899년 정부는 윤치호에게 한성판윤을 주겠다고 회유책을 썼으나 이를 거절하자 함경도 덕원부윤으로 쫓겨갔다. 1906년 4월 장지연, 윤희정 등과 교육의 확장과 부강을 도모하여 훗날의 독립의 기초를 만들 것을 목적으로 대한자강회를 조직, 회장이 되어 활약했다.

1910년(윤희 4년) 대한기독교 청년회를 조직 한·일합방 후 데라우찌 총독암살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1912년 6년형을 받았다.

일제말기에 귀족원의원이 되었다. 해방후 친일파로 몰림을 슬퍼하여 개성 자택에서 자결했다.

해방전 1936년에 헬렌켈러 여사가 서울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나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을 못하여 소위 '삼중고의 성녀'라는 별명을 가진 여성으로 별명의 뜻은 세가지의 어려움을 가진 성스러운 여자라는 뜻이었다.

어느날 조선폰에서 그녀의 성대한 환영회는 각 사회단체로 이루어져 있었고 일본 사람도 많이 참여했는데, 환영회가 끝난 다음 그 당시 서울에 와있던 선교사와 한국인 유지들이 로비에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 받을 적에 어떻게 되어서 이야기가 "처시하"라는 말로 번져 재미있는 웃음판이 벌어졌다. 처시하라는 말은 남편이 아내를 어른같이 받는다는 말이니, 공처가라고 하면 처시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된다.

미국의 신대륙을 개척한 것은 영국으로부터 "메이플라워"라는 조그만 배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간 사람들이 시초의 선조인데, 처음부터 여자가 적었던 까닭에 자연 여자가 귀하여 여자라고 하면 사족을 못쓰고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남자를 천하게 여기는 풍습이 생긴 것이었다.

그러므로 현재에 와서도 큰 빌딩의 엘리베이터 같은데서 단 한사람이라도 여자가 탔으면 남자들은 모두 누구나 할것 없이 모자를 벗어야 하는 법이니, 여성으로서는 좋겠지만 남성으로서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여자가 이혼 소송만 법원에 내면 백발 백중 으레 여자편이 이기게 마련이다.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도 가지 각색으로 심지어는 남편이 목욕을 잘하지 않으니, 또 혹은 밤에 코를 몹시 고니까, 함께 잠수가 없어서 이혼을 해달라는 것도 있는데, 재판관의 결과는 대개 아내의 이유가 옳으니 이혼을 해주라는 재판관의 판결이 내려진다.

그 반대로 남자측의 이혼 소송은 여간해서는 승낙을 얻지 못하며 성공한다 하더라도 평생 동안 수입의 몇 분의 일은 위자료로 전 아내에게 주어야만 하는 짐을 지게된다. 그러므로 한 번 이혼을 한 일이 있는 남자는 전 아내의 생활비를 대느라고 일생을 고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혼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데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인 남자들이 한 가지 우리나라 사람을 부러워 하는 것은 미국인들과는 정반대로 한국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대해서 지나치게 자유스럽고 남존여비의 풍습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그날도 미국사람들이 미국의 여성주의를 이야기 하다가,

"한국인은 어떻습니까? 아마 공처가는 없을꺼요?" 하고 물으니, 윤치호는 "그야 한국에도 많지요. 내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리까?" 하고는 다음과 같은 말을 꺼내었다.

옛날 어느 때 한 임금이 계셨는데 그 임금은 나라도 잘 다스리고 몹시 인자한 성품이었는데 너무 마음이 약해서 항상 왕비에게 찢찢매었다. 그로 말미암아 왕은 늘 마음에 좋지못한 근심에 쌓였다. 왕비에게 찢찢매어 사느니만큼, 대체 세상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따뜻하게 햇볕이 내리쬐는 날 백성들은 어떻게하고 사는가 모두 나같은 생활을 할까 궁금하여 시험해 보려고 청색으로 만든 기와 홍색으로 만든 기 한개씩을 만들어 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이윽고 신하가 두 기를 가지고 오니 대궐밖으로 나와 넓

은 마당에 한쪽에는 청기를 꽃고 다른 한쪽구석에는 홍기를 꽃게 한다음 다시 분부하시기를

"백성들은 듣거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말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은 청기 밑으로가고 잘듣지 않는 사람은 홍기 밑으로 가라." 하셨다. 임금의 명령을 들은 수많은 백성들은 그 말을 듣자 무슨 상이나 주는줄로 알고 남자들이 우루루 몰리는데 모두 청기쪽으로만 가서 모였다. 다시 말할것도 없이 처시하에 있던 사람들일 것이다. 왕은 "흥. 백성들도 별수 없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화가 치미는지라. 그러나 다만 한사람은 느릿느릿 걸어 홍기밑으로 가서 서는지라. 그는 십여살밖에 안되는 조그만 아이였다. 왕은 신기하고 기특해서

"모든 사람들은 청기쪽으로 갔는데 너많은 홍기쪽으로 가서서니, 그래 너는 네 아내가 무섭지 않느냐?" 하고 임금님은 물으셨다. 그는 한참동안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옵니다. 상감마마.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소인의 처가 말하기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다니라고, 많이 모이는데는 가지 말라고 해서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서 홍기밑으로 온 것입니다.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니다." 하며 탄식하셨다. 즉 홍기밑으로 간사람은 누구보다도 아내를 두려워하고 또 아내의 말을 가장 잘듣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좌옹 윤치호의 말이 끝나자 허리를 펴지못하고 웃었으며, "한국사람도 정말 그렇게 아내를 무서워합니까?" 하고 세상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모두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

이것은 청기홍기라는 좌옹의 유명한 이야기인데, 선생의 말에는 언제나 기지와 유머가 있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감명을 받게 하였던 것이다. 좌옹 윤치호 선생은 충남 아산군 둔포면 신항리에서 출생했다. 좌옹 유저에는 애국가를 윤치호 선생이 지었다고 하며 석곡리 비문에도 전한다.

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만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2. 남산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듯 바람이슬 불변함은 우리기상일세
  3. 가을하늘 공활한데 구름없이 높고 밝은 달은 우리가슴 일편 단심일세
  4. 이기상과 이마음으로 님군을 섬기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 지금의 애국가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

윤치호 선생이 살아계실때 적은 책이었다. 이 책에는 교훈적이고 우수한 이야기가 많이있다.

#### [고양이와 원숭이]

고양이와 원숭이가 한집에서 정답게 사는데 둘의 장난이 심하여 원숭이는 보는것마다 훔치고 고양이는 쥐잡는데는 마음이 없고 천장에 드나 들더니, 하루는 화로에 방구운 것을 보고 원숭이가 고양이를 불러 말하기를

"형님, 저 군밤을 꺼냈으면 우리둘이 잘 먹겠소마는, 내손은 형님처럼 길지 못하니 형님이 꺼내시오." 그 말을 들은 고양이가 화로에 재를 헤치면서 저밤을 하나씩 꺼내놓는대로 원숭이는 까서 먹더니 주인이 들어와 고양이는 발만데고 밤은 맛도 못보고 도망치더라.

(왜인의 앞잡이로 매국하는 사람들 생각좀 하시오.)

#### [사슴의 뿔]

하루는 냇가에서 사슴이 물을 먹다가 물속에 비친 뿔그림자가 좋아서 하는말이 "이 뿔은 참 훌륭하다. 뿔을 보면 내가 천하 일색이지마는 다리가 장대갈아서 분하다." 하고 탄식하더니 불안간 사냥개가 쫓아오니 업신여긴 다리가 나는듯이 뛰어 위급을 면할 뻔하였는데,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잡힌지라 사슴이 한숨지며 말하기를 "외면치레만하면 몸을 망친다" 하더라. (외면만 보고 친구사귀지마라)

#### [나귀의 실수]

한사람이 나귀하나, 강아지 하나를 두었더니, 나귀가 본즉 강아지는 아무 재주도 없이 주인앞에서 꼬리나 치고 뛰거나 하면서 좋은 음식을 얻어먹고 주인의 귀여움을 받거늘 나귀의 생각에 "나도 강아지하는대로 하리라." 하고 하루는 그 주인앞에 가서 꼬리를 저으며 강아지 흉내를 내다가 주인이 웃는 것을 보고 더 대담하여 주둥이를 주인의 귀에대고 기운것을

고 앞발을 주인 어깨에 얹고 뒷발은 주인 무릎위에 놓으려 하거늘 주인이 놀라 하인을 불러 채찍으로 때려 마구간으로 몰아 넣더라.

(이 말은 직분을 버리고 남의 흉내만 내는 놈은 채찍이 마땅하더라.)

#### [제비의 충고]

제비가 세계유람을 널리하여 지식이 많은지라 하루는 농부가 노끈꼬는 열씨를 심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니 그 삼이 자라면 노끈이 되어 그물을 떠서 들어있으면 새들이 많이 잡힐터라 제비가 그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새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삼이 자라면 우리 동포에게 큰 해가 될터이니, 우리가서 열씨(삼씨)를 낱알이 다 집어먹어 후한을 없이 하자" 하고 지성으로 권하매 여러 새들이 혹은 웃으며 말하기를 "맛없는 삼씨먹느니 다른 곡식을 먹지" 하며 혹은 "아무리 하기로 나아 잡힐까" 하며 혹은 "오할한 소리마라. 그런짓 안하고도 우리4천년이나 잘살았다." 하고 혹은 "에그 나는 늙었으니 설마 내생전에야 어떻겠나" 하고 자라서 싹이 파릇파릇 나는지라.

제비가 다시 새들에게 연설하여 아직도 늦지 않으니 싹을 모두 먹어버리자고 하여도 새들이 듣지않고 제비를 보며 미쳤다 하고 역적을 모의한다 하여 몽둥이로 때려 쫓아서 새 종종에 들지 못하게 하였더니 몇달후에 그 삼이 무성하며 농부가 거두어 껍질을 벗기어 노끈을 꼬아 새 그물을 떠서 새를 수없이 잡아 없애니 그제서야 새들이 제비의 충고를 생각하고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더라.

#### [황새와 붕어]

한 늙은 황새가 눈이 어두워 물속을 잘 보지 못하여 고기를 잡을수 없는지라 하루는 방죽가에 앉아서 생각하더니 붕어 한마리가 물위에 솟아다니거늘 황새가 다정히 인사하기를 "부참봉 편안하시오?" 붕어 "댁은 요새 관보도 못 보시오? 내가 직각벼슬한지가 벌써 몇일이오" 황새 "내 몰랐소. 그럼 치하좀 합시다. 그러나 안된일 있소. 어제 내가 여기 섰노라니 방죽주인이 어느친구와 이야기를 하는데 보름안으로 이 방죽을 다치우고 고기를 잡겠다 합니다. "붕어가 급히 물속으로 들어가 어족중회를 모으고 황새의 말을 반포하니 중회에서 부지각을 황새에게 대표로 보내서 고기사회를 보전할 방침을 물으니 황새가 홀연히 대답하기를 "자 좋은 수가 있소, 저 산밑에 내가 여름이면 피서하려고 만들어둔 연못이 있으니 붕어국 팔백만 동포를 내입으로 하나씩 모셔다가 그 연못에 놓고 여러분의 평안함을 보호하여 드리리다." 붕어들은 황새의 의도와 은혜를 감사하여 그 말대로 하였더니 황새가 고기를 물어가 아른못에 넣어두고 날마다 마음대로 잡아먹더라.

#### [생쥐와 쥐방울]

한 큰집에 쥐 잘잡는 고양이가 있어 쥐가 멸종될 지경인지라, 쥐들이 비밀로 중회를 열고 그 고양이를 없애거나 피할 도리를 구하느라고 의논이 분분한 중에 가장 어린 생쥐 하나가 회장을 동의하여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으면 그놈이 꼼짝만 하여도 딸랑거릴 테니 우리는 때 맞추어 피하는 것이 상책이겠소." 하니 회중에 대화하며 손뼉을 치며 갈채하는데, 그 중 늙은쥐 한마리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웃고하는 말이 "저 어린 친구의 계책이 좋기는 좋다마는 누가가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는지 자신이 있거든 손을 드시오." 하매 회중에 아무말 못하고 다 헤어지더라.

외국의 문물이 물밀듯이 이땅에 들어오기 시작할때 윤치호는 앞장서서 남의 것을 배우고 연구하였다. 일본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았다.

어지러웠던 구한말 남의것이라도 베울것은 배우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생각, 그때로서 아무나 할수없는 생각이었다.

그는 나라를 위하는 생각이 옳다는 신념으로 나라를 지키려 애썼기에 지금 이땅의 빛나는 별이되어 우리들의 가슴에 언제까지나 빛을 주고 있는 것이다.

애민태과 라는 말의 뜻은 백성을 사랑하기를 너무 과도히 한다는 뜻이다.

구한말 갑자기 이말이 유행어처럼 여러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것은 윤치호 선생이 덕원강리로 있을때 유래된 것이라 한다.

충명하고 신지식이 뛰어난 데다가 재화까지 겸비한 청년관리 윤치호 선생은 종전의 악폐를 없애고 큰 치적을 올린 연유로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의 존경을 모으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모두들 무서워하는 외국인의 배를 신지식을 이용하여 물러가게 하니 백성들

의 선망은 더욱 두터워 졌다.

한편 조정에서는 서로 혈뜰고 미워하는 당파싸움에 세력다툼이 심했던지라 그 영량은 결백한 윤치호까지 와서 봉고 파직을 당하게 되었다. 봉고파직의 원인인즉 애민태과 손실 정계라 한다.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여 파직당한 윤치호 선생에 대한 백성들의 동정은 고종임금에게 까지 알려져 다시 복직되었다.

이런 연유로 윤선생에 대한 음모는 단락을 맺게되고 애민태과라는 말은 유행어가 되어 지금도 전해진다.

옛전통만을 고수하려는 양반들, 그러나 윤치호는 개화를 중시하고 또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다. 애민태과라는 말도 그가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은 자랑스런 선인들 다시한번 그선인의 훌륭했던 마음가짐을 나의 가슴에 깊이 세기어 본다.